

## 그녀들은 왜 소년들의 사랑에 열광하는가?

—야마오카 시게유키(山岡重行)

『후조시의 심리학(腐女子の心理学)』

김소원\*

1. 서론
2. 후조시란 무엇인가
  - 2-1. 동인녀 혹은 후조시
  - 2-2. 오타쿠
3. 후조시의 심리학
  - 3-1.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갈등
  - 3-2. 가공된 판타지
  - 3-3. 엽기적 사랑
  - 3-4. 순애보
4. 그녀들이 BL을 즐기는 이유
5. 결론

### 국문요약

동인녀(同人女)와 후조시(腐女子)란 남성들의 동성애를 그린 장르인 BL을 매우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여성 독자층을 이르는 표현이다. BL은 1970년대 중반 소녀만화의 한 장르였던 소년애물에서 시작했다. BL장르는 아마추어 작가와 독자들에 의해 동인지로 선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에야 상업화되지만 메인스트림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도 한국과 일본이 모두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조시의 심리와 행동을 고찰한 야마오카 시게유키(山

---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岡重行)의 저서 『腐女子の心理学(후쵸시의 심리학)』을 분석한다. 그는 총 19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분석해 후쵸시의 심리적 특징과 그 특징에 기인한 BL의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BL은 소녀만화의 수동적인 여성상에 대한 반발이며 여성독자들이 ‘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계기이다.

아마오키는 후쵸시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후쵸시가 BL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BL이 가진 특징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후쵸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미를 통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쵸시 연구는 한국의 BL과 웹툰 플랫폼의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른 여성 독자들에게 대한 선행 연구로도 그 가치가 있다.

(주제어: 후쵸시, 동인녀, 동인 문화, 오타쿠, BL, 야오이, 소년애, 보이즈 러브)

## 1. 서론

동인녀(同人女). BL<sup>1)</sup> 및 관련 장르를 즐기는 여성을 이르는 것으로 동인지(同人誌)와 여성을 합한 조어이다. 이는 일본의 후쵸시(腐女子)<sup>2)</sup>와 유사한 표현으로 통칭된다. ‘동인녀’라는 표현은 후쵸시가 아마추어 만화 동인지를 창작하거나 동인지 판매전에 참가하는 여성을 이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한국의 동인녀와 일본의 후쵸시는 일반적으로 동인지 형태로 창작되고 유통되는 만화나 소설을 소비하거나 나아가서는 창작하는 열성적인 향유 계층의 여성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이 소비하는 만화 혹은 소설의 상당수는 남성 등장인물의 동성애를 그

1) Boys' Love의 약어. 남성등장인물들의 동성애적 사랑을 그린 장르. 본 논문에서 BL은 특히 BL만화를 칭한다.

2) 일본어로 부녀자(후쵸시, 腐女子)와 동음이의어.

린 BL 장르가 차지한다. BL은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이들의 동성애를 그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등을 이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히 '만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본고의 서술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BL 장르에 대한 이해이다. 남성들의 동성애를 그린 장르의 명칭으로는 최근 BL이란 표현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에 '소년애(少年愛)'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는 '소년애'를 영어로 풀어쓴 BL(Boys' Love)로 대체되었다, 이와 함께 '야오이', '탐미', 'JUNE(주네)', 등의 표현도 함께 사용된다.<sup>3)</sup> 이들 용어에 대해서는 일본의 후죠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소년애', '야오이', '보이즈 러브'를 혼용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이들 용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정의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들 용어의 정의에 대해 스기모토(杉本)는 “『소년애(그리고 『탐미』) 『야오이』 『BL』 사이에 유동적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며 “『BL만화』는 오리지널 상업 작품을 뜻하고 2차 제작<sup>4)</sup>된 동인지를 『야오이만화』로 『소년애』는 1970년대 『초기 BL』과 탐미작품”으로 정의한다.<sup>5)</sup> 아마오카는 후죠시에 대해 “BL과 BL망상을 즐기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BL에 대해서는 “남녀의 연애가 아닌 주로 미소년 사이의 사랑을 다룬 만화와 소설”로 BL망상은 “원작에서 친구, 주종, 대립 등의 관계인 두 사람의 남성 캐릭터를 연애 관계로 바꾸어 대사와 행동을 상상하며 즐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6)7)</sup> 본고에

3)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쪽.

4) 특정 작품을 패러디 하거나 원작의 캐릭터나 설정을 가져다 새롭게 가공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5) ジェシカ・パウエンス=杉本, 『社会批評との関係からみたグローバルな『腐女子』漫画文化—その可能性と限界』, 『国際漫画研究』, 京都精華大学マンガ研究センター, 2013, 138-139쪽.

6)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2쪽.

7) 즉 남성들 사이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 아닌 작품의 남성 등장인물들을 연인관계로 설정하고 상상하거나 동인만화 혹은 소설로 가공하기도 한다.

서도 『BL』은 프로작가가 창작한 오리지널 작품, ‘야오이’는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동인지, ‘소년애’는 1970년대 일련의 작가들에게서 시도되었던 동성애적 코드를 담고 있는 소녀만화<sup>8)</sup>로 정의한다.

BL의 기원은 1970년대 중반 소녀만화에 있다. 1960년대 초 여성작가들이 소녀만화 창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여성작가들의 등장으로 소녀만화의 특징은 더욱 뚜렷해졌고 이러한 표현이 정점에 이른 것이 1970년대이다. 화려한 칸 나누기 구성과 인물 표현의 독특한 조형성, 서정적인 언어, 인물의 관계성과 등장인물의 심리에 집중하는 서사 등 소녀만화 특유의 문법이 한층 강화되었고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소녀만화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고 몇몇 작가들은 유려한 그림체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 문학적인 대사와 내레이션으로 소년들의 사랑을 그렸다. 하기오 모토(萩尾望都)의 〈토마의 심장(トーマの心臓)〉(1974), 다케미야 게이코(竹宮恵子)<sup>9)</sup>의 〈바람과 나무의 시(風と木の詩)〉(1976)와 같은 작품에서 유럽의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소년들의 애뜻한 감정이 그려진다. 특히 다케미야 게이코의 〈바람과 나무의 시〉는 일본 최초의 소년애 만화로 평가받는 수작이다.

‘야오이(やおい)’는 야마나시(やまなし, 클라이맥스 없음), 오치나시(おちなし, 결말 없음), 이미나시(いみなし, 의미 없음)의 조어로 여성만화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편집부의 평가에 대해 다분히 자조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이다. ‘야오이’라는 단어가 매체에 처음 사용된 것은 1979년 발간된 동인지 『랏포리 야오이특집호(らっぽり やおい特集号)』로 알려져 있다.<sup>10)</sup>

8) 소녀만화(少女マンガ, 쇼쇼망가)란 여성이 주요 독자이고 창작자의 대다수도 여성이며 독특한 시각적 표현 기법을 가진 만화이다. 한국의 ‘순정만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9) 하기오 모토와 다케미야 게이코는 일본 소녀만화에 혁신을 가져온 ‘꽃의 24년조(花の24年組)’의 대표적 작가이다. ‘꽃의 24년조’는 쇼와(昭和)24년인 1949년 무렵 태어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데뷔한 일련의 여성 만화가들을 이르는 표현이다.

BL의 기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야오이 이전에 등장한 잡지 『JUNE』에도 주목해야 한다. 1978년 창간된 잡지 『JUNE』는 소년애 작품을 위한 최초의 상업지로 평가받는다. “지금 위험한 사랑에 눈뜨며(いま、危険な愛にめぎめて)”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남성들의 동성애를 그린 만화와 소설 중심의 잡지 『Comic JUN』<sup>11)</sup>이 창간된다. BL이라는 표현이 아직 등장하기 전 아름다운 소년들의 동성애를 그린 장르는 ‘탐미(耽美)’로 불렸다. 성애 묘사라는 포르노적인 부분과 서정적 스토리라는 문학적 부분을 더해 여성 독자를 위한 소년애를 ‘탐미’라는 개념으로 형상화 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Comic JUN』이었다.<sup>12)</sup> 이 잡지는 3호에서 제호를 『JUNE』로 변경했고 1982년에는 소설 전문 자매지 『소설 JUNE』가 창간된다.<sup>13)</sup> 이로부터 종종 BL 작품을 ‘JUNE’ 혹은 ‘JUNE계(系)’로 칭하기도 한다.

시대에 따라 장르를 정의하는 표현이 바뀌어왔듯 BL은 단순히 ‘동성애’를 다룬 이야기라고 정의하기는 힘들다. 주인공으로 남성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사랑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로맨스 장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주인공들의 사랑은 철저하게 남성 사이의 사랑으로 한정된다. 주인공 캐릭터의 특징에 따라 하위 장르가 나뉘고<sup>14)</sup> 이들의 사랑에 대해 ‘동성애’가 가진 사회적 터부나 정체성의 혼란, 고민은 축소되거나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한 설정 정도로 그려진다. 독자들의 상당수는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남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해 이성애와 다른 사랑으로 구분 짓지 않는다. 적어도 BL 작품 속에서는 남성들 사이

10) 東園子, 『私のための物語 やおい再考』, 『詩と批評 ユリイカ 特集 BL オン・ザ・ラン!』, 青土社, 2012, 175쪽.

11) 1978년 10월 창간, 3호에서 『JUNE』로 제호 변경. 1979년 8월까지 간행 후 휴간. 1981년 11월 복간 후 1996년 4월까지 간행.

12) 石田美紀, 『密やかな教育—やおい・ボーイズラブ前史』, 洛北出版, 2008, 204-207쪽.

13)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2-13쪽.

14) 독자들은 주인공 캐릭터의 외모나 성격, 직업 등의 특징으로 작품을 세분화 한다.

의 사랑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럽다. BL은 퀴어물과도 다르고 로맨스물과도 그 결이 분명 다르다. 무엇보다 이들 작품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독자들이 작품 속에서 묘사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보통의 사회적 통념과 매우 다르다. 독자들, 즉 동인녀 혹은 후쵸시에 대한 정의와 분석 없이는 BL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특이하고도 비보편적인 장르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사하게 발달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독자층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역에서는 배제되었지만 독자들은 꾸준히 시장의 확대를 주도했다. BL은 동인지를 통해 장르로 성립된 이후 뒤늦게 상업화된다. 일본의 경우 BL 전문 출판사와 잡지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었고 한국은 유료 웹툰 플랫폼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했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서비스의 웹툰으로는 볼 수 없는 BL 웹툰은 다양한 유료 웹툰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BL장르는 아마추어 작가와 독자에 의해 동인지로 선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에야 상업화되었지만 메인스트림에서는 배제되었다는 점도 한국과 일본이 모두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sup>15)</sup>

일본의 후쵸시 연구는 한국의 BL과 웹툰 플랫폼의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른 여성 독자들에게 대한 선행 연구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동인녀와 후쵸시 연구는 오랫동안 외면 받아왔다. 독자들 스스로가 '음지'로 부르는 동인 문화와 부패(腐敗)한 여자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말해주듯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였던 후쵸시에 대한 연구는 최근 여성만화와 여성 독자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몇몇 흥미로운 연

15) 일본 만화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 쇼가쿠칸(小学館), 슈에이샤(集英社)에서 발행하는 만화 잡지 중 BL 전문 잡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다음과 네이버에서 본격적인 BL 장르의 작품을 찾을 수 없다.

구들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sup>16)</sup>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일부)여성 독자들이 왜 BL을 즐기는가? 라는 오랜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BL담론이 마침내 양지로 이끌려 나왔음을 뜻한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BL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후쵸시를 주제로 한 여러 편의 졸업논문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그 결과로부터 후쵸시의 심리와 행동을 고찰한 야마오카 시게유키(山岡重行)의 저서 『腐女子の心理学(후쵸시의 심리학)』을 검토하고 후쵸시와 BL의 특징과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 논한다.

야마오카는 차별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던 중 후쵸시를 테마로 졸업 논문을 쓰고 싶어 하는 여학생들의 상담을 종종 받게 된다. 후쵸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선행연구의 부재를 느꼈고 그 결과 설문조사와 논문지도를 통한 분석 결과를 묶어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후쵸시의 심리학』에서 심리학의 관점으로부터 후쵸시와 ‘오타쿠(オタク)’<sup>17)</sup>를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후쵸시에 대한 분석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16) 2015년 이후 ‘야오이’와 ‘BL’에 관한 연구 서적의 출간이 눈에 띈다. 아즈마 소노코, 『다카라즈카, 야오이, 사랑 바꿔 읽기-여성과 대중문화의 사회학』(東園子, 『宝塚・やおい、愛の読み替え—女性とポピュラーカルチャーの社会学』, 2015.4.24), 미즈구치 야키코, 『BL 진화론 보이즈 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溝口彰子, 『BL進化論 ボイズラブが社会を動かす』, 2015.6.6), 상큐 타츠오, 『남자들의 BL론』(サンキュータツオ, 『俺たちのBL論』, 2016.1.21), 니시무라 마리, 『BL 컬처론-보이즈 러브를 알 수 있는 책』(西村マリ, 『BLカルチャー論: ボイズラブがわかる本』, 2015. 7.23) 등이 있다.

17) 만화, 애니메이션, SF, 게임 등의 대중문화에 심취한 사람. 대중문화 애호가들이 일본어로 ‘당신을 뜻하는 2인칭 경어 お宅(오타쿠)로 서로를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특정대상을 부르는 단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83년 잡지 『망가브릿코(漫画ブリッコ)』가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5쪽)

## 2. 후쵸시란 무엇인가

### 2-1. 동인녀 혹은 후쵸시

김효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화 동인문화가 형성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동인문화는 아마추어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였다. 최초의 만화 동호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1983년 결성된 PAC, 1984년 결성된 KGB등 많은 만화 동호회가 존재했다. 이들 동호회에서는 회원의 원고와 일러스트를 실은 회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했고 회원들의 회비와 회지판매로 운영되었다. 1989년에는 이들 동호회의 연합인 ACA(Amateur Comics Association)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1990년 2월 ACA 소속 동호인들의 전시가 열렸고 1991년 6월 30일에는 동호회 회지판매전이 개최된다.<sup>18)19)</sup>

이후 만화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만화 동인회는 점차 쇠퇴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일본의 BL 만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된다.<sup>20)</sup> 이후 여성중심의 동인문화는 1990년대 일본의 BL 만화가 한국에 수용<sup>21)</sup> 정착 된 후, PC 통신과 ‘코믹월드’<sup>22)</sup>와 같은 동인지

18) 宣政佑, 『韓國の・やおい文化の流れ』, 『詩と批評 コリイカ 特集 BL オン・ザ・ラン!』, 青土社, 2012, 210-211쪽.

19) 1980년대 후반 한국 순정만화의 혁신을 주도했던 아홉 명의 프로작가들은 ‘나인’이라는 동인회를 결성해 『아홉 번째 신화』라는 제목의 동인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까지 순정만화가들이 독학으로 만화를 공부했거나 문하생을 거쳐 데뷔했다면 1980년대 말 이후 데뷔한 작가들 중 일부는 만화 동인회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89년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잡지 『르네상스』가 창간된 후 만화가 데뷔의 경로로 추가된 것은 잡지에서 실행하던 신인공모전이다. 세대별로 독학과 문하생, 동인회 활동, 잡지 공모전으로 신인 작가들의 데뷔 경향도 달라진다.

20) 김효진, 『동인녀(同人女)의 발견과 재현』, 『아시아문화연구』 3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44-45쪽.



판매전을 통해 저변이 확대 되었다.<sup>23)</sup> 레진코믹스(www.lezhin.com)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웹툰계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다음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던 무료 웹툰 시장에 유료 서비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다. 레진 코믹스는 성인 인증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성인용 웹툰을 전면 배치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의 특성상 성인 콘텐츠를 서비스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성인 콘텐츠에 대한 터부, 오랫동안 만화는 무료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포털 사이트 웹툰에서 성인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레진 코믹스는 성인독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기존 포털 사이트 웹툰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레진 코믹스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했고 이후 많은 유료 플랫폼이 등장했고 이들 플랫폼 대부분은 성인 콘텐츠를 취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 콘텐츠의 주요 장르 가운데 하나가 바로 BL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의 등장 이전에 유통되던 BL의 대부분은 일본 작품의 번역판이었다. 보통의 만화 독자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몇몇 전문 출판사는 일본에서 발행된 BL을 들여와 공급했고 이들 BL만화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다. 그러나 유료 웹툰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이들 플랫폼에 연재되는 BL 웹툰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BL은 한국 만화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메인스트림에 등장한 적이 없는 장르이지만 유료 웹툰 플랫폼에서는 주요 장르로 부상했다. 이미

21) 오자키 미나미(尾崎南)의 <절애(絶愛-1989)>는 한국과 일본에서 BL만화의 분기점이 된 작품으로 꼽는다. 1989년 일본의 대표적 소녀만화 전문잡지인 『마가렛(マーガレット)』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를 통해 BL이 대중적으로 읽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도 1993년 해적판으로 소개되었다.

22) 한국의 만화 동인지 판매전. 1999년 일본의 만화 용품 제조업체인 DELETAR, INC의 한국법인인 에스이테크노(주)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1999년 처음 개최되었다.

23) 김효진,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0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265-268쪽.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수용되었고 아마추어 만화가들에게 습작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한 것이다.

후쵸시에 대해 아마오카는 “BL작품과 BL망상을 즐기는 인물”로 정의<sup>24)</sup>한다. BL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후쵸시를 중심으로 한 ‘동인지즉매회(同人誌即売会)’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점에서 유통되는 프로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만화 동인회<sup>25)</sup>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제작한 동인지 판매 행사인 동인지즉매회의 시작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제1회 코믹마켓(コミックマーケット)<sup>26)</sup>이 32개 서클, 약 700명이 참가한 소규모 행사로 개최되었다. 현재는 여름과 겨울에 두 번 3일씩 개최되며 약 3만5개 서클, 참가자 59만 명, 사흘 동안 판매되는 동인지만 약 870만 권의 세계적 규모의 만화행사로 성장했다. 개최 초기에는 여성 참가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점차 남성의 참가도 높아져 최근에는 3분의 1정도가 남성 참가자이다.<sup>27)</sup> 코믹마켓에서 판매되는 동인지 중에서 ‘2차 창작(二次創作)’으로 불리는 장르가 있다. 2차 창작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등 원작이 있는 작품의 등장인물을 활용해 동인지 작가가 새로운 스토리와 설정을 더해 창작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동인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작의 등장인물들을 동성애 관계로 설정한 야오이 동인지이다. 이들 야오이는 원작과는 전혀 상관없이 등장인물들을 동성 연인 관계로 설정한다.

후쵸시와 동인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아마오카는 후쵸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가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현실에서도 동성

24)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쪽.

25) 일본에서는 보통 만화 서클(マンガサークル)로 통용된다.

26) comic market, 줄여서 코미케(コミケ), 혹은 코미켓(コミケット)으로 부른다.

27) 코믹마켓 공식 홈페이지 배포 자료 『コミックマーケットとは何か』, コミックマーケット準備会, 2014.1. (<http://www.comiket.co.jp/info-a/WhatIsJpn201401.pdf>)

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점을 지적한다.<sup>28)</sup> 후쵸시는 이처럼 동인지의 필수불가결 요소인 동성애와 패러디를 다른 독자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원작을 그 자체로 즐기기도 하지만 나름의 흥미와 취향에 맞춰 이야기를 각색하고 그 결과는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동성애적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2-2. 오타쿠

야마오카는 일본의 오타쿠와 후쵸시의 역사에 대한 개설로 책을 시작한다. 그는 현대 오타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1950년대 중반 등장한 SF팬덤이라고 설명한다. SF 영화 붐이 그대로 SF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주전함 야마토(宇宙戦艦ヤマト)〉(1978), 〈은하철도 999(銀河鉄道999)〉(1979), 〈기동전사 건담(機動戦士ガンダム)〉(1981)과 같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대 성공을 거두게 된다.<sup>29)</sup> 〈은하철도 999〉 극장판의 경우 그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흥행 수익 1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팬의 확산을 바탕으로 1980년대 ‘오타쿠’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1980년대 초 애니메이션 등의 열정적인 팬 정도로 사용되던 오타쿠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과도하게 몰입한 사회성이 부족한 존재로 대중에게 인식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1989년 도쿄·사이타마 연속 여아 유괴 사건이다. 20대 남성이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 소녀 네 명을 유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범인의 집에서 다량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비디오가 발견된 것이다. 범인이 소유한 만화

28)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35쪽.

29)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3-4쪽.

와 애니메이션 가운데 폭력적이며 혐기적인 내용의 작품이 섞여 있었던 것에서 일부 매스컴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악영향을 주장했다. 전대 미문의 혐기적 범죄는 매스컴의 자극적인 보도로 이어졌고 결국 이 사건 이후 오타쿠에 대한 비판과 강한 편견이 생겨난 것이다.

오타쿠나 후쵸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외모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게 했다. 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야마오카는 오타쿠와 후쵸시들이 가지고 있는 패션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불만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불만은 일반인 대조군과 비교해 차이는 없었다. 다만 후쵸시의 경우 외견을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야마오카는 후쵸시들이 동인지를 구입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으로 패션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sup>30)</sup> 그는 이렇듯 오랜 편견에 대한 규명을 위해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시도하고 이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다. 그 동안 이루어져 온 오타쿠와 후쵸시 연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이처럼 오타쿠 혹은 후쵸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BL 작품의 특징을 야마오카는 하나하나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오타쿠 연구는 이미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간의 오타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오타쿠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의 해소에 일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오타쿠에게 향해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오카다 토시오(岡田斗司夫)는 『오타쿠학 입문(才

30) 코믹 마켓 준비회가 2011년 발표한 『코믹 마켓 35주년 조사 보고』에 따르면 코믹 마켓의 일반 참가자들이 회장에서 동인지와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금액은 만 엔~3만 엔 미만인 31.2%, 5천 엔 이하가 17.5%, 만 엔 이하와 3만 엔 이상~5만 엔 이하가 16.7% 5만 엔 이상~10만 엔 이하 12.2%로 참가자의 과반이 만 엔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

『タク學入門』(1996)에서 오타쿠가 고도의 감수성과 이해력을 지닌 어떤 의미에서의 ‘지적 엘리트’로 정의하면서 오타쿠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꾀하기도 했다. 오카다는 오타쿠 문화를 “에도 시대의 소비자 문화인 장인 문화의 정통 후계자”라고 평가한다. 단순한 것에서도 그 속에 담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별 것 아닌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장인처럼 오타쿠적인 재미는 장인의 예술을 감상하는 재미와 유사하다는 것이다.<sup>31)</sup>

오타쿠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함께 2000년대 이후 오타쿠는 과거와 비교해 폭넓게 사용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오타쿠와 후죠시 모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에 과도하게 몰입한 인물, 혹은 매우 능동적으로 그것을 향유하고 즐기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일부 교집합이 존재하지만 분명히 고도 명쾌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타쿠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시도되어 온 후죠시 연구에는 허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오키는 후죠시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 3. 후죠시의 심리학

#### 3-1.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갈등

아마오키는 심리학의 관점에서부터 후죠시를 분석하고 남자대학생 552명과 여자대학생 1360명, 총 19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분석해 몇 가지 결과를 내놓는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에 응한 여학생들 중 318명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서 말하는 후죠시의 범

31) 오카다 토시오, 『오타쿠』, 김승현 역, 현실과 미래, 2000, 272-273쪽.

주에 드는 것으로 평가한다. 후조시가 된 계기는 우연히 BL을 접하게 되면서 부터인 경우가 많으며 동성애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들의 대인관계에 있어 특이점은 없다. 이는 오타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오타쿠와 후조시가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에 서투르다는 편견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9년의 한 사건을 계기로 오타쿠를 소아성애증이나 외설적인 만화, 애니메이션과 결부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났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른다. 야마오카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오타쿠들과 일반인들 모두 그리고 후조시 스스로도 후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다. 후조시들 스스로 자신들이 평범하지 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야마오카는 “후조시는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갈등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장한다.<sup>32)</sup> 이성애만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태어나 이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그린 이야기가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성애규범’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터부가 분명히 존재하는 일본에서 후조시들은 같은 취향을 지닌 집단과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취향을 정당화 하지만 절대 다수가 이성애자인 사회에서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후조시 스스로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일종의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여성이면서 남성들의 동성애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부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갈등”은 결국 많은 BL애호가들이 실생활에서는 이성애자라

32)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05쪽.

고 해도 스스로를 일종의 ‘성적 소수자’로 여기게 한다. 이는 결국 성적 행동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다.

성인 영화와 포르노그래피는 오랫동안 남성을 위해 존재해왔고 사회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을 용인했다. 그리고 남성들이 즐기는 포르노그래피는 어디까지나 오락으로 즐기는 것으로 행위자들 사이에 사랑의 감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BL은 행위자들 사이의 사랑이 필수적이다. BL이든 2차 창작된 야오이이든 남성 등장인물들 사이의 애정과 감정의 교류 없는 성관계 묘사는 용인되지 않는다. 애정 없는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애정이 동반되는 관계로 전환된다. 보통의 여성에게 애정 없는 성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규범이 BL에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마오카는 “BL은 여성들에게 있어 실행불가능성과 사랑의 귀결로서의 성애라고 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된 포르노그래피”로 평가한다.<sup>33)</sup>

일본 여성독자들의 BL 취향에 대해 여성에게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그래피라는 평가는 선행연구에서도 존재한다.<sup>34)</sup> 그렇다면 이 연구의 핵심인 ‘후쵸시는 BL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야마오카의 분석을 살펴보자.

33)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01-103쪽.

34) 堀あきこ, 『欲望のコード—マンガにみるセクシュアリティの男女差』, 臨川書店, 2009, 3장 참조.

### 3-2. 가공된 판타지

야마오카는 후조시가 남성들의 동성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느낀다면 게이 남성을 위한 출판물이나 영상에도 흥미를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 후조시들이 즐기는 대부분의 BL에서 그려지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캐릭터들의 사랑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조사 결과 후조시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BL 속에서 등장하는 사랑과 캐릭터일 뿐 실재하는 동성애를 즐기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게이 남성들은 BL을 즐기지는 않는다. 두 가지 모두 남성들의 사랑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sup>35)</sup>

그리고 후조시는 단순히 BL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2차 제작을 통해 다른 영역의 작품, 즉 BL이 아닌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을 가져와 동성애 관계로 변환한다. 원작에서는 친구 사이이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이 후조시의 2차 제작물에서는 연인이 된다. 그녀들은 가공의 세계를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 충실히 구성하고 즐긴다. 그리고 BL은 어디까지나 만화와 소설이 주류이고 영상물은 극히 적다. 게이 남성을 위한 포르노 영화와 성인물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을 즐기는 여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일부 후조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 스타, 스포츠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가공한 동인지를 창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좋아하는 실존 인물을 작품 속의 캐릭터로 만들어 BL 관계로 망상을 즐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BL 만화와 소설이 영상화되기 보다는 성우가 목소리를 연기한 '드라마 CD'로 제작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sup>36)</sup>

35)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64-166쪽.



CD가 영상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후쵸시가 즐기는 BL에는 공상과 상상의 여지가 풍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아마오카는 “후쵸시가 공상의 여지가 큰 이야기를 판타지로 즐기는 것으로 후쵸시에게 있어 BL은 공상의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37)</sup>

흥미로운 것은 오타쿠 중에서 유메쵸시(夢女子)라고 불리는 여성군이다. 만화, 애니메이션, 아이돌 멤버 등 좋아하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가공하거나 일러스트, 만화, 소설 등을 창작한다는 부분은 후쵸시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캐릭터들의 사랑을 동성애 관계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를 아이돌과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세계로 들여 보낸다. 반면 후쵸시의 BL 망상 속에는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오카는 이에 대해 후쵸시가 자신의 신체와 성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세계로부터 분리시킨 결과로 분석한다. 그 누구로부터도 상처 받지 않고 망상 안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실감하는 것은 타인의 인생을 좌우할 때 일 것이다. 권력과 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망상 속에서는 신(神)이 될 수 있다. BL 망상세계의 신인 후쵸시는 자신의 망상 세계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한다.<sup>38)</sup>

이와 같이 후쵸시의 공상과 상상, 혹은 망상은 BL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BL이 아닌 작품을 2차 제작으로 BL화 시키는 계기가 된다.

36) 인기 BL 작품을 라디오 드라마처럼 성우들이 연기하고 이를 CD로 제작해 판매하는 드라마 CD는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도 BL소설이 드라마 CD로 제작되기도 한다.

37)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67쪽.

38)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239쪽.

그리고 이런 공상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뿐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들—주로 아이돌이나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까지 확장된다. 후쵸시는 어쩌서 현실을 BL로 치환하고 공상을 더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아마오키는 “BL망상을 즐기는 후쵸시는 오타쿠의 초진화형”이라고 진단한다.<sup>39)</sup> 오타쿠는 하나의 작품을 다양한 각도로부터 분석하고 접근한다. 원작에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의 이야기를 상상으로 만들어 패러디 하며 동인지를 만들어 즐기는 특징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후쵸시들은 원작에는 없는 애정관계를 만들어 패러디한다. 야오이 동인지에서 원작에서 차용해 오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이름, 직업, 나이와 같은 매우 기초적인 작중 설정일 뿐 많은 부분들이 가공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후쵸시의 망상과 상상은 오타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에 대해 아마오키는 상자 안에 사람, 동물, 식물 등등 다양한 미니어처를 자유롭게 배치하며 완성된 작품을 통해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치료를 예로 들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에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후쵸시들은 자신들이 BL을 즐기는 것으로 얻는 만족도가 오타쿠와 비교해 높았다. 극단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발휘된 상상력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후쵸시가 BL망상을 통해 얻는 효과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통한다고 주장한다. 상상 속에서나마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혹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존하는 인물이기도 한)를 마음대로 바꾸고 재구성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상상한다. 심리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와 유사하다. 취미에 열중하는 만큼 힘든 현실과 고통을 견뎌내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는다.

39)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194쪽.

### 3-3. 업기적 사랑

일반적인 경우 독자, 혹은 관객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활약과 해피엔딩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 구성을 위한 극적 장치로 등장인물들에게는 패배와 시련이 필요하다. 스포츠물 혹은 어떤 형태로든 대결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은 쉽게 승리를 얻지 못한다. 적과 라이벌이 강할수록 독자들이 주인공의 승리에 느끼는 만족감은 높아진다. 일련의 스포츠물은 모든 조건을 갖춘 천재적인 라이벌과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조건에 놓인 주인공과의 대결 구도에서 주인공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 부친다.<sup>40)</sup> 주인공과 라이벌의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은 장르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주인공의 시련이 클수록 독자들은 주인공을 응원하며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결말의 해피엔딩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독자들은 그들의 희생에 감동 받는다.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고통에 슬퍼하고 감동하는 독자들의 양상은 비슷하지만 후조시들의 경우 훨씬 복잡한 심리 구조를 가진다. 캐릭터를 아끼고 캐릭터들의 행복한 결말을 지향하기에 이들에게 사랑을 필수요소로 사용하지만 이들 캐릭터가 일반적인 의미의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는 않는다.

BL작품 가운데 성적 학대나 폭력적인 장면이 소녀만화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등장인물을 극한의 상황까지 괴롭히며 이야기의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흐름과 일치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40) 특히 스포콘(スポコン, 스포츠와 근성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1960년대에 유행한 만화 장르를 예로 들면 라이벌은 완벽한 환경에서 성장한 천재이고 주인공의 환경은 라이벌과 비교해 뛰어나지 않다. 주인공은 타고난 근성과 재능 그리고 극한의 노력으로 승리하지만 결말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후조시의 심리에서는 남성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랑과 사랑의 거부, 망상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처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감정이 늘 충돌하고 갈등한다. 따라서 후조시들은 망상의 세계와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차단한다. 망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즉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나. 현실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이 침해당하고 고립된 나.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 나. 후조시의 엽기적인 사랑은 후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sup>41)</sup>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별의 주인공이 겪는 고통을 후조시는 철저히 관조할 수 있는 것이다. BL을 읽는 후조시들은 작품 속의 주인공이 겪는 성적인 학대나 폭력에 감정이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가련하고 아름답지만 어디까지나 자신과는 다른 성별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 3-4. 순애보

BL을 통해 긍정의 힘을 얻는 후조시들에게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주인공들의 남다른 사랑에 있다. 순애보적인 사랑 이야기의 인기는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성이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애뜻하고 간절하게 만들기 위한 불치의 병이나 연인의 죽음 같은 클리셰가 반복된다. 2001년 출판된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2003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いま、会いにゆきます)>, 2006년 <연공(恋空)><sup>42)</sup>과 같은 연애 소설이 영

41)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240쪽.

42) 2005년부터 모바일 소설 사이트 ‘마법의 아일랜드(魔法のiらんど)’에 연재된 게타이

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성공했다. 불치병으로 사망하는 연인(〈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연공〉), 아내의 죽음과 기억상실(〈지금, 만나러 갑니다〉)과 같이 주인공의 죽음이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 되는 작품들의 인기는 장애물이 있는 힘겨운 사랑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화와 로맨스에서 사랑의 성립은 결혼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화나 영화, 소설 속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현실에서 찾기는 어렵다. 가공의 이야기에 존재하는 운명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랑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BL은 남성들의 사랑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일본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동성애라는 장벽을 설정할 수 있다. 남녀가 아닌 남남으로 바뀐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보다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 나간다. 불치의 병에 걸린 주인공 혹은 신분의 차이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뛰어넘는 사랑은 그렇지 않은 사랑이야기 보다 훨씬 흥미롭고 감동적이다. BL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설정 중 하나가 이성애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등장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커다란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성별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실 된 사랑을 나누게 된다. 후쵸시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순애보'로 치환해 감동한다. 이처럼 후쵸시는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지극한 사랑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운명을 거는 사랑 이야기는 소녀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이지만 BL은 이러한 운명적인 사랑에 '동성애'라는 숙명적이고 강도 높은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이야기를 더욱 격정적으로 이끌어 간다.

---

소설(ケータイ小説, 휴대폰 소설)로 2006년 종이책으로 출간되었다.

#### 4. 그녀들이 BL을 즐기는 이유

고전적인 소녀만화에서 여성들은 꽤 수동적으로 그려진다. 남성들에게 사랑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존재의 이유가 설명된다. 고전적인 소녀만화 속의 남성은 자신 스스로의 행동으로 존재한다면 여성은 남성의 사랑이 없이는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 소녀만화가 장르적 특징을 확고히 다지던 1970년대 일본은 상당히 보수적인 남성 중심사회로 소녀만화잡지의 편집부조차 대다수가 남성 편집자에 의해 움직이던 시기였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소녀만화는 은연중에 불평등한 성역할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1976년 최초의 소년애 만화로 평가받는 다케미야 게이코의 〈바람과 나무의 시〉가 갖는 의미는 크다. 소녀만화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 묘사가 금지되어 있던 시기, 보다 깊이 있고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남녀 사이의 성 묘사는 불가능했지만 남성과 남성 동성사이의 베드신은 가능한 모순이 소년애의 시작이라는 것은 당시 소녀만화가 얼마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sup>43)</sup> 후지모토 유카리(藤本由加里)는 소년애 만화의 등장에 대해 소녀독자들이 ‘성’에 대해 자유로워진 계기로 평가한다. 소년애가 소녀들을 성에 대한 엄격주의에서 벗어나 성을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여성독자들은 만화, 영화 등의 매체에서 그려진 남녀의 성행위에 대해 여성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인을 위한, 정확히는

43) 다케미야 게이코는 인터뷰에서 〈바람과 나무의 시〉로 소년애를 그리게 된 것에 대해 당시 존재했던 표현의 규제를 이유로 들었다. 〈바람과 나무의 시〉는 주인공 두 소년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 다.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2901980.html>)

44) 藤本由加里, 『私の居場所はどこにあるの?』, 朝日新聞出版, 2008, 196쪽.

성인 남성 독자를 위한 만화에서의 성행위에 여성들이 감정이입 하기란 쉽지 않다. 호리 아키코는 남성 독자를 위한 만화와 여성 독자를 위한 만화의 성행위 묘사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남성용 성인 만화의 경우 철저하게 남성 행위자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반면 여성용 성인만화는 여성등장인물 중심으로 그려지되 등장인물로부터 다소 거리감을 유지한다. BL의 경우는 두 주인공 모두에게 균등하게 시선이 배분되지만 마찬가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묘사된다.<sup>45)</sup> 이처럼 여성 독자들의 경우 성 묘사에 대해서는 남성 독자들과 비교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다.

따라서 BL이 여성독자를 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조시들은 스스로를 은폐하는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후조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취향이나 관심사에 대해 감춘다. 야마오카의 연구 결과 후조시는 취미를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신의 취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생활과 취미생활의 괴리가 BL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향유로 이어진 것이다.

## 5. 결론

이상으로 야마오카의 『후조시의 심리학』을 토대로 BL의 특징과 여성 독자들이 BL을 어떻게 수용하고 향유하는지 살펴보았다. 오타쿠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후조시에 대한 연구

---

45) 堀あきこ, 『欲望のコードマンガにみるセクシュアリティの男女差』, 臨川書店, 2009, 180-185쪽.

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일 뿐 본격적인 고찰과 접근은 아직 많지 않다. 아마오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는 오타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과 비교해 후조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담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정적 인식 또한 강하기 때문이다. 아마오카의 주장에 의하면 대학생 중 후조시의 비율은 20%정도로 스스로 오타쿠적인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남학생의 비율인 50%에 비교하면 훨씬 낮다. 후조시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그녀들의 존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오카의 연구는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를 통해 일반인들과 오타쿠를 후조시와 비교한다.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한 최초의 후조시 연구라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BL이 생겨나고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성에 대한 억압과 보수적이며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반동임을 알 수 있다. 아마오카는 '소녀만화의 저주'라는 표현으로 소녀만화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설명한다. 물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소녀만화 속의 여성들도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작품 전반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애정 문제에 있어서 소녀만화 속의 주인공들 혹은 만화 속의 여성들은 여전히 수동적이다.

후조시는 기존의 소녀만화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BL 만화를 통해 충족시켰다. 그녀들은 BL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어디까지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며 작중 인물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2중적 태도를 취한다. 이는 BL이 가지고 있는 '남성 동성애'라는 특징에 기인한다. 후조시들은 남성 주인공들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인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감정이입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후



죠시가 가진 BL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괴리와 심리적 갈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BL이 가지고 있는 과격한 성적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을 분리시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남성과 남성의 사랑은 그 자체로 터부의 파괴이며 고난 극복의 순애보가 된다. 이처럼 후죠시가 BL을 통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BL이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의 사랑으로 치환된 사회적 터부와 모순 그리고 그 안에 놓인 자신,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야마오카의 연구는 그의 주장대로 후죠시를 밖으로 드러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만화계의 한 축을 담당했고 매우 적극적인 향유자이자 소비자로 존재했던 그녀들은 지금까지도 그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오타쿠 연구가 이미 오래전에 어둡고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를 타파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던 것과 달리 후죠시는 최근엔야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심리 분석과 조사 결과의 일부는 상상 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일부는 증명되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이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 그러나 후죠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섬세한 분석과 중립적 시각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대상이 일본의 대학생, 그리고 야마오카가 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학생들에 한정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한 한계이다. 야마오카 스스로가 후죠시를 “BL과 BL망상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으나 정작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대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 최대의 동인지 판매전인 ‘코믹 마켓’의 발표에 의하면 서클 참가자의 연령대는 꽤 폭 넓은 편으로 1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연령은 여성의 경우 32.4세, 남성은 31.4세이다. 참가자 중 25~29세 참가

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sup>46)</sup> 물론 이 데이터는 일반 참가자가 아니라 동인지 제작하고 판매하는 동인회(=서클)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이므로 일반 참가자와는 좀 다른 비율을 보여줄 수는 있다. 게다가 후쵸시가 일본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도 존재하며 서구권에서도 BL을 즐기는 여성 독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정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후쵸시의 속성과 특징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객관적인 접근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후쵸시의 특징들이 결국 BL의 특징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매우 흥미롭다. 후쵸시와 BL의 특징은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업화되기 전 동인지로 시작했다는 것, BL의 표현방법이나 하위 장르 등이 한국에서도 매우 흡사하다. BL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언어 또한 일본어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문의 음독만을 바꾸어 표현하기도 한다. 일본의 인기 작품은 과거에는 해적판으로 현재는 정식 번역판으로 한국에 소개되었고 동인녀는 후쵸시와 많은 것을 공유해 왔다. BL이 소녀만화의 수동적인 여성상과 성적 억압에 대한 반발의 결과이듯 순정만화는 오랫동안 수동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강하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도 분명 존재하지만 연애와 사랑에서는 결국 수동적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심리적 억압은 한국의 여성독자들도 가지고 있다. 후쵸시 연구는 동인녀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BL 만화는 일본 만화의 번역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46) 코믹마켓 공식 홈페이지 배포 자료 「コミックマーケットとは何か」, コミックマーケット準備会, 2014.1. (<http://www.comiket.co.jp/info-a/WhatIsJpn201401.pdf>)

47) 長池一美, 「グローバル化する研究—日本研究からトランスナショナル研究へ」, 『女性マンガ研究』, 青弓社, 2015, 134-152쪽.

현재 대략 33개에서 36개 정도의 웹툰 플랫폼이 존재한다.<sup>48)</sup> 플랫폼의 수와 연재되고 있는 작품의 양만으로 본다면 한국 만화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호황이며 성장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웹툰의 양적 성장은 보다 다양한 장르를 양산했다. BL은 다음과 네이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웹툰 플랫폼에 연재되고 있다. BL의 양적 성장세는 뚜렷하다. 만화뿐만이 아니다. 동인지로 만들어진 구작(舊作) BL 소설의 상당수가 소설 플랫폼에서 e-Book으로 재출간 되었고 동인작가들은 이제 상업 BL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동인녀’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BL은 더 이상 ‘동인’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화된 여성독자와 콘텐츠 연구의 맥락에서 아마오카의 연구는 향후 후조시 연구뿐 아니라 한국의 동인녀와 BL 연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48) 웹툰 인사이트(<http://www.webtooninsight.co.kr>)에서 매일 한차례씩 공개하고 있는 트래픽 기반 플랫폼 인기 순위에 의하면 2017년 8월 이후 유의미하게 운영되고 있는 웹툰 플랫폼의 수는 33개에서 36개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山岡重行, 『腐女子の心理学—彼女たちはなぜBLを好むのか』, 福村出版, 2016.

### 2. 논문과 단행본

김효진,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0,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263-291쪽.

———, 『동인녀(同人女)의 발견과 재현』, 『아시아문화연구』 3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43-75쪽.

오키다 토시오, 『오타쿠』, 김승현 역, 현실과 미래, 2000.

堀あきこ, 『欲望のコード—マンガにみるセクシュアリティの男女差』, 臨川書店, 2009.

大城房美編, 『女性マンガ研究』, 青弓社, 2015.

東園子, 『私のための物語 やおい再考』, 『詩と批評 ユリイカ 特集 BL オン・ザ・ラン!』, 青土社, 2012, 172-177.

藤本由加里, 『私の居場所はどこにあるの?』, 朝日新聞出版, 2008.

石田美紀, 『密やかな教育—“やおい・ボーイズラブ”前史』, 洛北出版, 2008.

宣政佑, 『韓国の・やおい文化の流れ』, 『詩と批評 ユリイカ 特集 BL オン・ザ・ラン!』, 青土社, 2012, 209-215.

コミックマーケット準備会・コンテンツ研究チーム, 『コミックマーケット35周年 調査調査報告』, 2011.

ジェシカ・パウエンス=杉本, 『社会批評との関係からみたグローバルな「腐女子」 漫画文化—その可能性と限界』, 『国際漫画研究』, 京都精華大学マンガ研究センター, 2013, 135-148.

아사히신문 디지털 페이지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2901980.html>

코믹마켓 공식 홈페이지 <http://www.comiket.co.jp>

## Abstract

Why They are Enthusiastic about Boys' Love?  
— Yamaoka Shigeyuki's *The Psychology of Hujyosi*

Kim, So-Won(Sangji University)

*Don-in-nyo* and *Hujyosi* are expressions for women readers who enjoy BL(Boys' Love) enthusiastically, the genre drawing upon male homosexuality. BL started as *Syonenai*, a genre of *Syojyomanga* in the mid-1970s. The BL genre first appeared as *Dojinshi*(Coterie Magazine) by amateur writers and readers, and was commercialized thereafter. However, it was drastically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This was common in South Korea and Japan.

This paper analyzes Yamaoka Shigeyuki's book, *The Psychology of Hujyosi*. H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the results. He studied the psychological features of *Hujyosi* and the characteristics of BL. BL is a resistance against the passive women's representation of *Syojyomanga*, and a momentum in which women readers are liberated from sexual oppression.

Yamaoka analyses *Hujyosi* objectively. As a result, he discovered that *Hujyosi* hope to gain close connections with the features of BL. In addition, he explained that *Hujyosi* felt happiness through their passionate interests over BL. This study on *Hujyosi* has a value as a major preceding research on the women readers who emerged as new consumers of BL and webtoon platforms of the same genre in South Korea.

(Keywords: Hujyoshi, Dong-in-nyo, Dong-in Culture, Otaku, BL, yaoi, Syonenai, Boys' Love)

304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논문투고일 : 2018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5일